



화순군 화순읍 '진선미 떡 한과' 심은 사장(왼쪽)이 파프리카 즙으로 만든 삼색 가래떡을 떡국용으로 잘게 썰고 있다. 심씨는 5년간 실패를 거듭한 끝에 '파프리카 가래떡'을 만들었다. /화순=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올 설엔 ‘파프리카 떡국’ 드세요”

화순 향토음식연구가 심은씨 개발

화순의 한 향토음식 연구가가 설을 겨냥한 '이색 떡국'을 5년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냈다. 화순의 특산물인 파프리카로 가래떡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일본 등 수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던 파프리카 재배 농민들은 어느 해보다 희망차고 따뜻한 설날을 맞이하게 됐다.

설 연휴를 사흘 앞둔 15일 오전, 화순군 화순읍 향정리 '진선미 떡 한과'에는 알뜰하게 썰어진 가래떡이 주황·노랑·녹색 등 맛깔스런 색을 내뿜으며 진열돼 있었다. 떡에 색소를 입힌 것은 아니다. 파프리카의 알록달록한 즙이 떡에 스며들어 다양한 색을 내는 것이다.

주황·노랑·녹색 '군침'

'파프리카 가래떡'은 '진선미 떡 한과'의 심은(여·45) 사장의 역작(力作)이다. 지난 2001년 '화순 향토음식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던

심씨는 어느 날 화순군으로부터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한 음식을 만들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고심하던 심씨는 도곡면에서 출하되는 파프리카를 소재로 한 가래

파프리카 즙 스민 알록달록 '삼색떡'

5년만에 결실...전국 곳곳 주문 '폭주'

떡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군이 창업자금으로 1천만원을 지원했고, 심씨는 운영하고 있던 폐백 가게 문도 닫은 채 새로운 떡 개발에만 온 힘을 쏟아부었다. 요리사직이나 논문을 아무리 뒤져도 파프리카로 떡을 만드는 방법은 없었다. 누구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음식이었다. 심씨는 먼저 파프리카를 잘게 썰어 떡 반죽에 섞어 보았다. 떡의 표면이 울퉁불퉁해졌

고, 파프리카 씹히는 맛이 영 아니었다. 파프리카를 분말로 만들어 반죽했다. 이번에는 색이 나오지 않았다. 겉모습이 일반 가래떡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파프리카 특유의 냄새가 심하게 났다. 2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80kg들이 쌀 200가마는 족히 날렸다. 지난

재배농가에도 희망

는 소문이 퍼지자 설을 앞두고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했다. 하루에 600kg의 떡이 반나절도 안돼 동난다. 사람들은 '삼색떡'이라 부르며 신기해한다. 가격은 1kg 당 5천원으로 일반 가래떡보다 50%가량 비싸지만 없어서 못 판다. 심씨는 아직 별다른 스토리 체적질한다.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 다른 떡에 비해 빨리 상한다며 해결책을 찾는데 고심이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심씨의 설명. 심씨는 "파프리카는 각종 비타민과 식물성 섬유, 철분, 칼슘 등이 풍부한 채소"라면서 "파프리카 가래떡"으로 설날 아침 떡국을 먹는 사람들에게 우리 고향 화순을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이라고 말했다. /화순=임주형·조성수 기자 jhlim@kwangju.co.kr

피의자 수감된 채 도주 22시간만에 다시 검거

목포, 사기혐의 10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10대 피의자가 호송 경찰관을 따돌리고 도주했다가 22시간 만에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 경찰은 15일 "전날 오후 4시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던 중 도주했던 사기 피의자 백모(19·목포시 산정동)군을 이날 오후 2시께 목포시 산정동 낙원교회 인근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백군은 인터넷을 통해 오토바이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쟁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난 12일 경남 양산에서 검거된 뒤 목포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었으

며, 14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백군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앞니 3개가 탈구돼 14일 오후 4시30분께 목포시 산정동 S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뒤 도로 갓길에 세워진 경찰 호송차량에 타던 중 순식간에 호송 경찰관 3명의 제지를 물리치고 수감한 채 도망쳤다.

백군은 이날 할머니 집으로 가던 중에 경찰에 검거됐으며, 당시 한쪽 손의 수감을 빼낸 상태였다.

경찰은 그러나 백씨가 도주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검거 전담반을 편성했으며, 검문소 검문검색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大法 “사회통념 넘는 고리 안값아도 된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고율의 이자를 달라는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빌렸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회(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오모씨가 "원금과 이자 4천800만원을 달라"며 연 243%의 이율로 1천300만원을 빌려간 심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 심사에서 "상당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01년 2월 심씨에게 선이자를 떼 후 1천300만원을 빌려줬으나 심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심씨는 1999년 9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3천여만원을 월 40%의 이율로 빌린 후 1억1천만원을 갚았으며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남뉴스

“개인주의 풍조 속 사회 발전에 고민”

‘反FTA’ 시위 주도 남총련의장 執猶

광주지법 이례적 판결

법원이 지난해 광주시 청사 앞 FTA 반대 시위 주동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남총련 의장에게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폭력 시위를 주도한 죄는 인정되지만,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실에도 젊은 대학생이 국가와 민족, 시대와 사회문제를 고민하다 시위에 나섰다 점을 재판부가 최대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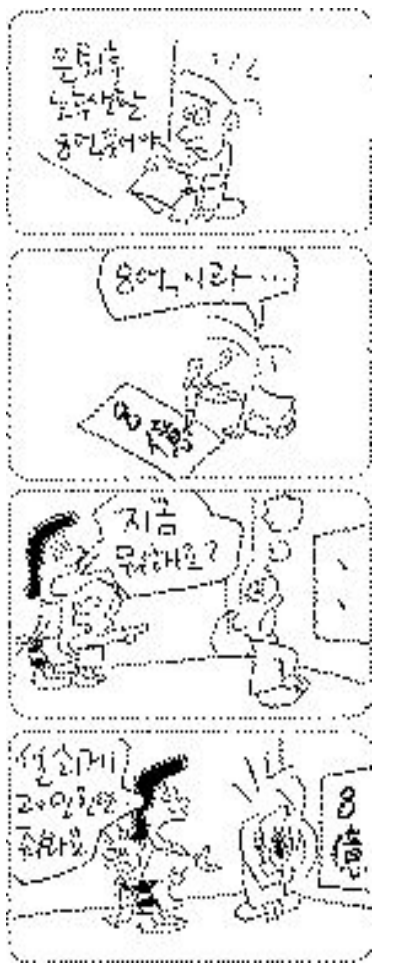
광주지법 제4형사부(김재영 부장판사)는 15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FTA 반대시위를 주도하며 폭력을 조장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남총련 의장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학생들이 개인적인 이해만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국가의 장래와 사회 발전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본인 스스로 폭력 시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학업성적도 우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경찰 37명이 다치고 광주시청사 기둥이 파손돼 4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FTA 반대시위를 비롯한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056) 김장두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후원
평생선도저의 중점특강을
누리는 3,636 회대원제!
특별한 4+1명 제대원 제도
수원선도저 피오래
문의전화 062-367-9000

“좋은 일에 써라” 돼지 저금통 기부

○50대 농민이 “좋은 일에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광주시 남구청 사회복지민원실에 동전과 지폐가 가득한 돼지 저금통(사진)을 맡겨 화제.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가족들과 5년동안 모았으니 좋은 일에 써달라”며 빨간색 돼지 저금통을 내놓고 갔다는 것.

○남구청에 따르면 이 저금통을 구청 내 민원실에 전시해 나눔정신을 본받도록 하는 한편, 향후 개봉해 어려운 이웃 돕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창립기념 특가 세일!!

호남지역의 고급 여행브랜드 소리투어

창립기념 특가일본 고급골프3박4일

299,000원

출발일: 3월 5일(단1회)
선착순: 20명
모집내역: 영문클럽 36홀, 카메리아 (2동실), 풍나우골프도 (다만실)
포함: 클럽내 중식(2식)
*부동산출발 도착기준입니다.

소리투어